

WGBI 편입 :단기적 환율 및 금리 안정



Fixed Income Strategist

안재균

☎ (02) 3772-1298

✉ jk.ahn@shinhan.com

약 2.22% 비중으로 2025년 11월 WGBI에 편입될 한국 국채

8일 FTSE 러셀은 한국을 WGBI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오른 지 약 2년 만의 결과이다. 전 세계적으로 추종 자금이 약 2.5조 달러로 추정되는 WGBI에 한국은 2.22% 비중으로 편입될 예정이다. 약 50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. 실제 지수 편입은 2025년 11월이지만, 대략 1년 동안 분기별로 편입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.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WGBI 관련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.

시장 기대 앞선 WGBI 편입 발표: 단기적 환율 및 금리 하락 예상

2022년 이후 외국인들의 분기 평균 장기 채권 매수 규모는 약 74억달러이다. 이 중 중앙은행과 일반 정부를 뺀 금융기관은 약 30억달러이다. WGBI 편입으로 약 500억달러의 추종 자금이 내년 11월 전까지 한국 국채에 들어올 경우 분기당 100억달러의 자금 유입폭을 계산할 수 있다. WGBI 관련 수요가 2025년까지 환율 안정을 유도할 공산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. 이번 WGBI 편입 발표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외환시장 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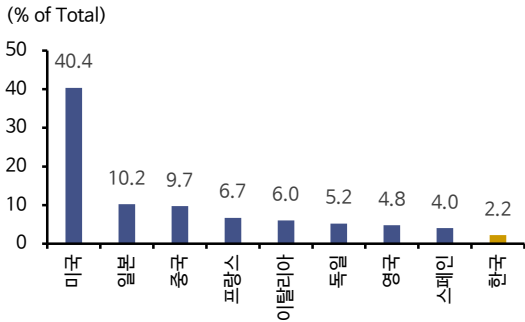
또한 외국인들의 국고채 투자에서 장기 투자 성향이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. WGBI 내 만기별 비중을 보면 1~3년 25%, 3~5년 18%, 5~10년 27%, 10년 초과 29%이다. 3~10년물 비중이 46%로 절반을 차지한다. 기본적으로 WGBI 편입 시 외국인들의 매수는 3~10년물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여겨진다. 2015년 이후 외국인들은 통안채 순매수를 줄이고 국고채로 전환했다. 2020년 이후로는 국고채에서도 2~10년물 순매수 확대 흐름이 관찰된다. WGBI 편입은 중앙은행, 국부펀드 외 금융기관의 국고채 장기 투자를 견인할 요인이다.

WGBI 편입은 외환시장 안정, 국고채 장기 투자 성향 강화를 일으킬 이벤트이다. 게다가 이번 편입 발표는 시장이 예상했던 내년 3월보다 앞서서 나왔다. 단기적으로도 환율 및 금리 하락 효과를 줄 수 있다. 2010년 4월 WGBI 편입 발표 후 2일간 환율이 1.3% 하락하고, 국채 5년물도 4.8% 하락했던 멕시코 사례를 한국도 보여줄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.

외인들의 지속적 KTB 순매수 확대가 이어져야 장기적 효과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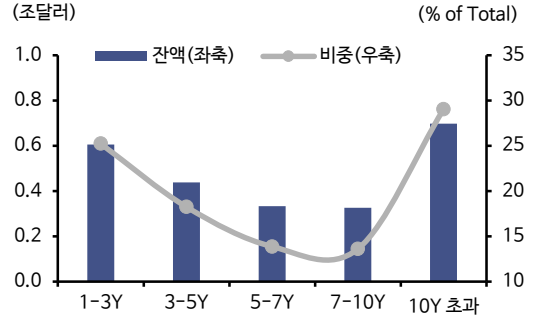
3분기 외국인들은 월평균 5.7조원 국고채 순매수에 나서며 상반기 평균 2.5조원을 크게 상회한다. 내년 3분기까지 현재 이상의 기조가 이어져야 WGBI 편입 효과로 꼽히는 정부 이자비용 감소, KTB 대외 신인도 상승 등 중장기적 기대요인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. WGBI 편입을 장기적 관점의 이슈로 보는 이유다.

한국, WGBI에 2.22% 비중으로 편입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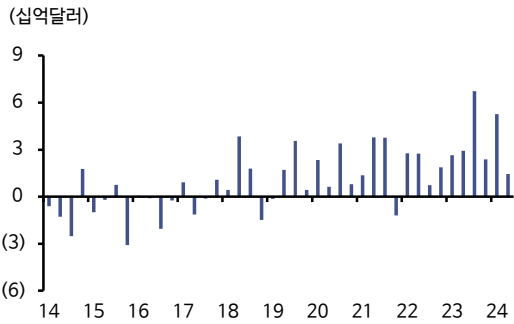
자료: FTSE, 신한투자증권

WGBI 만기별 비중: 3~10년물 구간 46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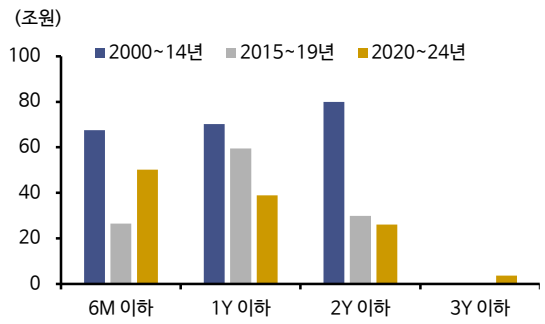
자료: FTSE, 신한투자증권

22년 이후 외인 분기 평균 투자 규모 약 30억달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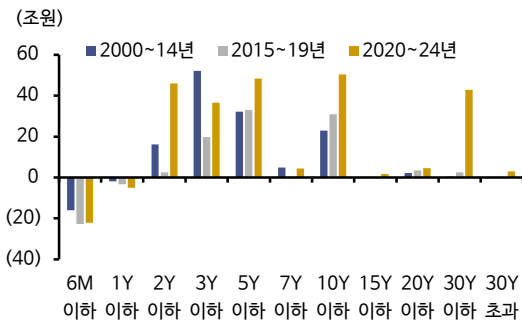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신한투자증권 / 주: 자본수지 금융계정 내 장기증권

2015년 이후 외인 통안채 1~2년 순매수 축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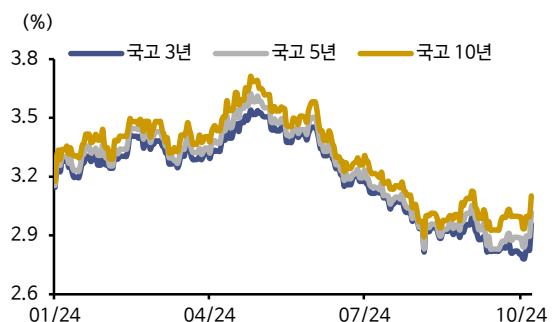
자료: 인포맥스, 신한투자증권

2020년 이후 외인 국고채 2~10년 순매수 확대



자료: 인포맥스, 신한투자증권

WGBI 편입, 초단기 및 장기적 관점 긍정적 요인



자료: 인포맥스, 신한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안재균).
- ◆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,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.